

아카시아 향기여!, 그리움이여!

인일 4기 : 오순억

추억의 나의 고교시절을 생각하면 먼저 봄이면 하얗게 피어 있던 아카시아 꽃 냄새다. 교문을 들어서서 언덕 위의 교실로 들어가는 내내 달콤하고 향기로운 아카시아 향기는 지금도 코끝에 느껴지는 듯하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중앙 현관을 나와 언덕길을 내려올 때 볼 수 있었던 길옆에 예쁘게 피어있던 채송아 꽃도 잊을 수 없다. 너무나 예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 하곤 했다.

그보다 더 큰 추억은 원형 교사의 아름다움이라 하겠다. 아름다운 그 원형교사 속에 우리는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억이 쌓여있는지.....

쉬는 시간이면 부채꼴의 교실을 벗어나 이 교실 저 교실에서 복도로 나와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던 우리들의 우정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겠지?

내 친구 초현이! 언제나 위트와 기지로 우리들을 배꼽잡고 웃게 만들던 친구, 그리고 내 짝꿍 인애, 그리고 현숙, 경, 금이, 은성.....등,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고3때 2학기 중간고사? 정확하진 않지만 몇몇 친구가 모여 시험이 끝나는 날에 애관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모의를 했다.

영화의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모두가 꼭 보고 싶어 했던 매우 유명한 영화였다. 그 때는 학생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발각되면 생활지도 대상이 되어 그에 타당한 징벌을 받아야 했다. 드디어 시험의 지옥 속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대담하게도 교복을 입은 채로 애관극장을 향해 갔다.

나는 소사역(지금의 부천역)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소사역에서 내려서도 40분이 넘게 기차길을 따라 걸어서 집에까지 가야하는 통학생이었다. 신이 나서 영화관으로 향하여 걸어가던 나는 문득 영화가 끝나고 나면 어두어져 기차길을 걸어 벽선을 통과해야하는 무시무시한 귀갓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 소사역에 내려 걷는 길 대신에 버스를 이용하면 그 무서운 길을 통과할 걱정이 없겠다 싶어 주머니에 넣어둔 동전을 세어 보며 친구들을 따라가는데 계산을 하고 보니 영화 티켓을 사고 나면 버스비가 없다,

주머니에 동전을 세고 또 세어 보아도 없는 돈이 나올 리가 없었다.나는 내내 친구들을 따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앞서가던 친구들을 불러 세워 영화관을 못갈 것 같다고, 우리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 걸 깜박 했노라고 하니, 모두들 배신자라고하며,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거라고 한마디씩하며 나를 설득했지만

나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돌아서 집으로 갔다. 돈이 없어 영화를 볼 수 없는 내 신세를 비판하며 슬퍼하면서....., 당시 우리 부모님은 차비 외에 용돈을 주는 일이 없었다. 더구나 영화를 보기위해 용돈을 달라는 것은 죽음을 달라는 것과 같았다. 돈이 없어 영화를 볼 수 없는 나는 나무나 처량하고 슬펐다.

영화를 보면 늦어서 무서운 길을 걸어 갈 수 없다고,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친구들 중에 내게 돈을 빌려 주었을 텐데 난 그럴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 와보니 영화관에 갔던 친구들이 교실에 없었다. 내 생각엔 ‘영화를 본 친구들 끼리 모여 저희들끼리 어디서 재미나게 노는가 보다’ 하고 있으려니, 1교시 수업이 끝나도록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어디 갔냐고 교실에 있던 친구들에게 물으니 영화관에 갔다가 생활 주임쌤께 걸려 도서관에서 근신이라는 벌 받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영화를 보다 걸린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됐고 나 때문에 친구들의 불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안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덜덜 떨며 마음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다음날, 다행히 친구들은 큰 벌은 받지 않고 반성문을 쓰고 교실로 돌아왔다. 나는 얼른 친구들에게 다가갔으나, 배신자라며, 마치 나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말도 못 붙이게 했다.

나는 거의 일주일 이상 친구들에게 고립되었으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돈이 없어 영화를 못 본 것을 털어놓지 못했다.

“친구들아 나는 그 시절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신세였단다.”

“그 때를 용서해 주렴!”

그래도 돌아보면 아름답기만 한 그 시절이여, 인일의 그리움이여!

2020년 가을에